

신여성-사회주의자-여성 가장으로서의 작가 박화성

서 여 진*

요약

박화성(朴花城, 1903-1988)은 숙명여고보 졸업 후 일본으로 건너간 이듬해인 1927년 근우회 동경지회의 초대의장으로 활동할 만큼 사회주의에 깊이 관여했던 작가다. 결혼과 연이은 출산으로 인해 학업을 그만두고 고향인 목포로 돌아와 소설 집필에 매진하는 동안에도 박화성은 여러 작품을 통해 계급의식이 반영된 작품들을 창작해 나간다. 계급의식과 여성의식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던 그녀의 박화성 문학 연구는 대부분 박화성의 작품경향 내에서 이 두 가지가 불화하는 양상을 지적하면서 박화성이 여성의식보다는 계급의식에 초점을 맞추었다거나 그의 계급의식이 철저하지 못했음을 한계로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박화성의 해방 이전 단편 및 장편 『북국의 여명』에 나타난 사회주의자의 재현 양상에 주목할 경우 박화성 작품에서 계급의식이 소멸된 것은 그가 활동했던 당대의 신여성-작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사회주의 운동의 지속이 불가능했던 역사적 맥락, 실제적인 여성 가장으로서 운동을 지속할 수 없었던 개인적 사정 등에서 기인하는 것임을 확인하였다. 박화성은 주로 단편 작품을 통해 당시 사회주의 진영에서 여성사회주의자에게 요구했던 이중적이고 불안정한 여성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작품화하는 한편, 신여성이자 여성작가에 대해 문단이 가하는 비난의 시선을 다분히 의식하고 그들이 가지는 신여성에 대한 비판 담론을 수용, 작품화하는 방식으로 창작활동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신여성-작가이자 사회주의자로서 그녀에게 가해지는 비참한 관심과 사회주의 진영 내 여성에 대한 가부장적 인식, 사회주의 검거 열풍이라는 사회적 상황과 여성 가장으로서 생계를 돌보아야만 하는 작가의 개인적인 처지에서 오는 고통은 박화성으로 하여금 더 이상 가부장적 남성들의 담론을 수용할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수료

수 없게 만들었으며 이것이 여성사회주의자를 전면화한 『북국의 여명』과 같은 작품이 앞선 담론에 비춰 분열을 일으키는 계기가 된다. 박화성은 단편과 장편이라는 차이에 남성사회주의자와 여성사회주의자를 각각 초점화하는 전략을 통해 계급적 문학을 창작하기 어려웠던 여성의 현실을 드러냈다. 이렇듯 해방 이전 박화성의 작품에 나타난 계급의식과 여성의식의 양상을 파악하고 그것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신여성이자 사회주의자, 여성가장이었던 박화성의 복합적인 상황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한다.

주제어: 박화성, 신여성, 여성사회주의자, 여성가장, 『북국의 여명』, 근우회

목차

1. 서론
2. 2기 신여성 작가와 지식인-남성-문단
3. 가부장-사회주의자 남성의 착종된 시선
4. 사회주의에 대한 이상과 여성가장이라는 현실
5. 결론

1. 서론

1925년 단편 「추석전야」(『조선문단』, 1925.1.)를 발표하면서 문단에 나온 박화성(朴花城, 1903-1988)은 강경애, 최정희, 백신애 등과 함께 카프 문학의 영향권 아래에서 문학활동을 시작한 2기 여성작가¹⁾ 중 한 명이다.²⁾ 그는 1934년 김기진이 박화성을 ‘동반자적 경향파’로 분류한³⁾ 이래

1) 김윤식은 여류문사의 활동시기를 3기로 나눈 뒤, 1기에 김명순, 김원주, 나혜석, 2기에 강경애, 박화성, 백신애, 최정희, 모윤숙, 노천명 등이 활동했으며 3기에는 2기의 여류작가들이 신체제 문학의 영향 아래에서 활동했던 것으로 본다. 김윤식, 『한국문학사논고』, 범문사, 1973, 228-254면.

2) 김영미, 「1930년대 여성작가의 문단인식과 글쓰기 양상」,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김영미는 비슷한 활동 배경을 가진 이 세 명의 여성 작가가 저널리즘이 성행했던 1930년대 당시 문학의 장안에서 스스로를 수동적 위치에만 놓지 않고 문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전략

지금까지 박화성의 해방 이전 문학을 연구하는 데 주요 키워드가 되어 왔다.⁴⁾ 실제로 박화성은 1926년 숙명여고보 졸업 후 일본으로 건너가 니혼여대 영문학부에서 수학하면서 근우회 동경지회의 초대장으로 활동했다.⁵⁾ 이후 유학 당시 만난 사회주의자 김국진과 결혼하여 두 아이를 출산한 상황에서 학업을 지속할 수 없었던 박화성은 1929년 3학년을 수료한 뒤 고향인 목포로 돌아와 소설 집필을 이어나간다. 본격적인 집필활동을 시작한 1932년부터 1937년 창작을 잠시 중단하기 전까지 5년의 기간 동안 박화성은 20여 편에 달하는 단편과 두 편의 장편 『백화』(『동아일보』, 1932.6.8.~11.20.)와 『북국의 여명』(『조선중앙일보』, 1935.4.1.~12.4.)을 썼는데, 이때 창작된 작품들의 대부분이 자신이 기반하고 있던 목포를 중심으로 한 농어촌의 궁핍한 현실을 그리고 있으며 작품 내에 사회주의자

적 글쓰기를 통해 오히려 당시의 문학 장을 ‘가능성의 공간’으로 인식하며 작가적 정체성을 확보해 나간 것으로 평가한다.

3) 김기진, 「朝鮮文學의 現在の 水準」, 『신동아』, 1934.1, 46면.

4) 관련하여 김종욱은 카프의 방향전환 과정에서 주도권을 상실한 김기진의 상황을 고려할 때 박화성을 동반자작가로 분류하는 문학사적 통념은 백철의 『조선신문학사조사』(현대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종욱, 「일제강점기 박화성 문학의 지역성 연구: 동반자작가로서의 위상과 관련하여」, 『한국현대문학연구』 42호, 2014.4, 209면.

백철은 박화성을 ‘프로레타리아 문학의 동반자 작가로 칭하면서 그를 “직접 카프와는 관련이 없이 작품활동을 한 사람이지만 이 경향파에 속하는 유력한 작가 중의 일인”으로 꼽는다. 백철, 『조선신문학사조사』(현대편), 백양당, 1949, 177면. 서정자, 「일제강점기 한국여류소설 연구」, 숙명여대 박사, 1987, 28면에서 재인용.

5) 『중의일보』의 기사에 따르면 근우회 동경지회는 1927년 12월 27일 발기인회 당시 21인의 출석을 기록하였으며 이 때 박화성이 초대장으로 선출되었는데 당시 동경에 유학중이던 여학생은 근 삼백여 명에 달했으며 기타 노동부인도 상당한 수였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동경으로 유학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박화성이 초대의장에 당선된 사실을 통해 그가 유학생 사회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근우회는 이전까지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로 분열되었던 조선의 여성운동 진영이 합쳐진 단일 여성운동 단체를 표방하였으나 당시 근우회 결성의 논리를 형성하고 활동 방침 결정 등의 주도권을 쥐 쥔 쪽은 사회주의 여성운동 진영이었던 만큼 계급적 색채가 짙은 단체였다. 이렇게 볼 때 박화성이 초대의장을 역임했던 근우회 동경지부의 성격 역시 조선의 상황과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박화성이 그 초대의장을 역임했을 만큼 사상이 깊고 적극적이었을 것이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중의일보』, 1927년 12월 27일.

의 활동모습을 기입하는 등 계급문학적 색채를 띠고 있다.

실제로 박화성은 2기 여성작가 중에서도 부르주아 계열의 이선희, 장덕조, 노천명, 모윤숙 등과 달리 강경애 백신애와 함께 리얼리즘 계열의 작가로 구분되었다.⁶⁾ 그의 문학에 나타난 계급문제에 대한 연구는 단편작품의 소재나 주제 등에 나타난 계급성을 확인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이후 박화성의 계급의식의 기원과 형성과정에 주목하는 연구들이 제출되었다. 그러나 정작 박화성이 활동했던 당시 문단의 상황은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권영민에 따르면 당시 문단에서 동반자문학의 영역에 유진오, 이효석, 이무영, 채만식 등의 남성작가와 함께 박화성의 이름이 거론되지만 이는 계급문단이라는 조직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진 문단적 구분일 뿐이었다.⁷⁾ 또한 김종욱에 따르면 당시의 박화성은 계급문학의 자장 안에서 계급적 관점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문학 진영의 주목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애초에 이광수의 추천을 받아 문단에 데뷔한 이래 그와의 교류를 지속한 점으로 인해 계급문단으로부터 비판을 받았으며 목표의 유지였던 천독근과의 재혼으로 인해 그의 사상성이 의심되었다는 것이다.⁸⁾ 최창근의 경우에도 박화성의 초기 문학이 상당한 계급성을 띠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대에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는 그 이유로 박화성 특유의 창작방법을 들고 있다. 즉 당대 주류를 구성하고 있던 문단의 남성비평가들이 인위적 설정을 통한 강하고 분명한 계급의식의 표출을 원했던 것에 반해 박화성은 현실에서 소재를 취하고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계급의식을 드러내려 했다는 것이다.⁹⁾ 말하자면 박화성 문학에 나타난 계급성의 문제는 당대 몇몇의 비평가들에 의해 단편적으로 언급되다가 1990년대 이후 여성주의 이

6) 이은주, 「여성작가가 재현한 '신여성'이라는 현실」, 『현대문학의 연구』 49, 2013, 282면.

7) 권영민, 『한국계급문학운동연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4, 452-453면.

8) 김종욱, 앞의 논문, 209면.

9) 최창근, 「박화성 소설 연구: 1950-1960년대 소설의 담론적 실천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박사, 2012, 5면.

론의 영향 하에 이루어진 여성작가 발굴 과정을 거쳐 의미부여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1930년대 박화성 문학에 대한 연구들은 그의 작품에 나타난 계급의식과 여성의식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두 가지 속성이 불화하는 양상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¹⁰⁾ 요컨대 계급의식 혹은 여성의식을 기준으로 다른 한쪽의 의식이 불철저하거나 수준에 미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불철저함은 곧 그의 작품이 드러내는 한계로 지적되고 만다.¹¹⁾ 박화성 문학에 나타난 계급의식과 여성의식의 관계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그의 작품에 있어 계급해방이 여성해방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간주한다.¹²⁾ 이들은 주로 박화성의 단편 「비탈」(『신가정』, 1933.8~12)이나 「신혼여행」(『조선일보』, 1934.11.6.~21)에 나타난 여성주인공의 재현 양상에 주목, 박화성이 각성된 남성의 지도를 받아 계몽되는 여성인물을 제시했다는 점, 신여성에 대한 당대의 비판을 그대로 작품화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한다. 이은주의 경우, 단편소설 「신혼여행」의 주인공 복주가 목포의 궁핍한 현실을 목도한 뒤 각성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자기반성이 복주 자신이 아닌 남편의 가치관에 의한 것임을 비판한다.¹³⁾ 복주에게서 여성 특유의 작가적 시선이 포착되지 않고 박화성이 형상화하고 있는 신여성의 모습이 1930년대 문단의 남성(지배)언술체계가 여성을 배제하고 주변화한 전략적 방식과 같다는 것이다.¹⁴⁾ 이태숙 또한 박화성과 강경애의 작품에 나타난 계급성의 문제를 논하면서 박화성의 경우,

10) 대표적인 연구로 백문임을 들 수 있다. 백문임, 「박화성의 경향소설에 나타난 계급과 성의 문제」, 『현대문학의 연구』11, 한국문학연구학회, 1998.

11) 서정자는 박화성의 동반자 작가로서의 의식이 점차 소멸해가는 것에 대해 김문집 등의 평론가가 불평했던 것과 같이 그의 의식이 미약했기 때문인 것으로 본다. 서정자, 「박화성의 시대와 문학」, 『문학춘추』 28, 1999, 41면.

12) 서정자, 「일제강점기 한국여류소설 연구」, 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1987; 백문임, 앞의 논문; 이태숙, 「사회주의 여성문학의 계급성 문제」, 『어문학』 78집, 2002.

13) 이은주, 앞의 논문, 293-296면.

14) 위의 논문, 293면.

사회주의 이론을 토대로 여성해방을 계급해방에 부수하는 것으로 보고 계급성을 강조하는 작품을 일관되게 보인 것이라 평가한다.¹⁵⁾ 그러나 이는 기존의 사회주의 운동에 대한 연구에서 사회주의 여성운동을 “남성 사회주의에 맹종하는 이론 없는 운동”으로 평가¹⁶⁾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단편적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후술하겠지만 이러한 신여성에 대한 배제와 계몽의 서사가 전면화된 데에는 1기 여성작가들에 대한 당대의 비난과 여성 작가가 문단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처세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박화성의 작품에 나타난 사회주의자의 재현 양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¹⁷⁾ 지금까지의 연구는 박화성의 작품에 나타난 사회주의자들을 하나의 정형화된 존재로 인식했을 뿐 성별에 의한 차이나 개별적인 특성과 상황을 분석하는 것에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 또한 이들 주의자들의 지도를 통해 각성되는 여성인물을 두고 가부장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남성 지배논리를 답습했다거나 작품의 여성인물들이 보이는 계몽성과 경직성, 보수적 성향이 남성성을 강화하는 것이라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나 박화성의 1930년대 단편 및 『북국의 여명』에 나타난 주의자의 재현 양상은 신여성-작가에 대한 당대의 맥락은 물론, 당시 여성사회주의자들이 처한 제약적인 상황에 대한 이해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남성 사회주의자의 시선에서 쉽게 단죄되고 계몽의 대상이 되는 여성인물들이 여성사회주의자에게 초점이 맞춰진 경우의 그것과 다른 양상을 보이기

15) 이태숙, 앞의 논문, 485면.

16) 정원아, 「근우회와 조선여성해방 통일전선」, 『역사문제연구』 42권, 2019, 393면.

17) 박화성의 초기 단편작품들에는 주의자의 형상이 빈번하게 노출된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하수도공사」(『동광』, 1932.5.), 「떠내려가는 유서」(『만국부인』, 1932.10.), 「비탈」(『신가정』, 1933.8-12), 「혈어진 청년회관」(『청년문학』, 1934 창간호), 「눈 오던 그 밤」(『신가정』, 1935.1)이 있다. 본고에서는 이들 작품에 나타난 주의자들의 재현양상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다. 또한 본고에서 인용하고 있는 단편작품들은 모두 푸른사상 전집판 16권에 수록되어 있다. 앞으로 전집에서 인용되는 내용은 괄호 안에 면수만 표기하기로 한다.

때문이다. 이러한 낙차는 당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었던 신여성이자 사회주의자이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했던 여성가장이라는 박화성의 복합적인 상황에 대한 섬세한 접근을 요한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주의자가 등장하는 박화성의 1930년대 단편 및 『북국의 여명』을 중심으로 그 구체적인 양상을 살펴보고 이를 박화성이 활동했던 당대의 여성에 대한 인식과 사회주의 운동의 맥락에서 확인해 봄으로써 박화성의 작품에 드러나는 분열의 양상이 작가 개인의 의식부족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는 것임을 밝히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해 당대 신여성이자 사회주의자이면서 여성가장의 무게를 짊어졌던 작가 박화성의 상황과 작품에 대한 좀 더 풍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 기대한다.

2. 2기 신여성 작가와 지식인-남성-문단

식민지 조선의 신여성에게 주어진 역할은 어머니와 부인이었으며 현모양처가 되는 것이 여학생의 덕목이었다. 신여성의 성적 개방 문제는 민족주의자나 사회주의자를 막론하고 사회적으로 규제되어야 한다는 암묵적 동기가 형성됐으며 남성 지식인들은 이를 위해 신문이나 잡지를 통해 그들을 비판하거나 개인의 연애사와 같은 사적인 영역을 게재함으로써 그들을 단속했다.¹⁸⁾

서울 녀학생은 돈 만흔 부랑자의게 유혹되기가 까닥하면 쉬운 것이며 몸팔아서 공부기는 녀자 몸팔기 위하여 기생되는 녀자 돈만은 놈의게 첩으로 가는 여자 돈 만은 외국(外國) 사람의게 시집가는 녀자 선생으로 가셔도 시골 남자 선생의게 정조를 파는 녀자 이것이 소위 신녀자들의 하

18) 전희진, 「식민지시기 문학의 장에서의 여성 작가들-2세대 여성 작가들의 작품과 삶의 경로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사학회, 『사회와 역사』 93, 2012, 8-14면.

는 일이고 몸 담아둔 곳이다.¹⁹⁾

인용문은 한 남성필자에 의한 1920년대 신여성에 대한 세평이다. 필자는 ‘서울 녀학생’으로 대표되는 신여성을 특히 정조의 문제와 관련하여 비난하면서 그 대책점에 ‘일꾼 여성’을 위치시키고 이들 신여성이 새로운 일꾼이 되기를 당부한다. 위와 같이 당시의 남성지식인들은 여성 해방 담론을 유행처럼 소비하면서도 그에 대한 거부와 불안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배제하기 위해 잡지라는 매체를 전략적으로 활용, 여성해방 담론을 신변잡기적인 것으로 격하시킨다.²⁰⁾ 이들은 논설이나 사설 같은 기사란에서 끝나지 않고 심지어 유머란 등을 통해 노골적인 야유나 조롱을 내보이는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여성해방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감을 드러내며 이들을 사회에서 배제해 나간다²¹⁾

특히 여성작가의 경우에는 사생활에 대한 관심과 폭로의 정도가 선을 넘어 비상식적 수준에 가까웠다. 작품에 대한 평가보다 삶에서의 행적이 더욱 주목 받고 비난 받았던 것이다. 이는 비단 김일엽, 김명순, 나혜석과 같은 1기 여성작가들에게만 한정되지 않고 박화성, 강경애, 백신애, 최정희 등과 같은 2기 여성작가들에게도 적용되었다.

華星의 ○話는 일직부터 世人的 話題에 오른지오래이다. 그가 朝鮮女流文士의가다가가기를 가지기前 東京留學時代, 아니 그以前부터 그에게는 ○話가 그치지안었다.

그러나 華星이 朝鮮文壇에잇서 女流作家로서의 ○位를엿게되자 그를 싸고도는 所聞은 갑자기 불어갓다. …〈중략〉…都大體 文學한다는 아직도

19) 金波, 「朝鮮 女性의 向할 길-특히 신녀성들에게 말하야 일꾼녀자가 되기를 바란다」, 『신성』 49, 1926. 9, 11면. 정일영, 「일제 식민지기 남성의 ‘여성해방’담론 소비방식-1920년대 잡지로 보는 담론의 전략과 (비)웃음의 정치」, 역사학연구소, 『역사연구』32, 2017.6, 18면에서 재인용.

20) 위의 논문, 8-13면.

21) 위의 논문, 30면.

이쌍에서는 色다른存在로서의 女流문사가 하나둘씩 「조르즈·산도」를崇拜하고 심부손主義를 實踐하기로스니 그것이 비록 巷間의 話題는 될지모르나우리에 말성이 될必要는없다. (밑줄-인용자)²²⁾

인용문은 사회주의 담론 잡지 『비판』 48호(1938년 8월)에 실린 박화성에 대한 기사다.²³⁾ 靑雲生이 쓴 「女流作家 華星女史의 桃色行狀記」라는 제목의 이 글은 박화성이 목포의 사업가 천독근과 재혼하는 것에 대해 ‘도색행장기’와 같은 원색적인 표현을 써가며 비난을 가한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박화성에 대한 이러한 비난의 시선이 단지 천독근과의 재혼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있다. 인용에도 드러나듯이 박화성은 천독근과 재혼하기 훨씬 이전부터 세인의 비상한 관심을 받아 온 여류작가²⁴⁾다. 그런데 세인의 관심을 받게 된 배경에는 그녀가 “文學한다는 아적도이쌍에서는 色다른存在로서의 女流문사”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즉 박화성에 대한 관심의 상당부분은 그녀가 당시 관심의 대상이었던 신여성-작가였다는 사실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박화성은 “東京留學時代, 아니 그以前부터” 오랜 기간 이러한 타매와 질타의 시선 안에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박화성을 비롯해 여류로 분류되는 작가들은 문학작품보다는 공개장, 좌담회, 소식란 등을 통해 연애, 결혼, 이혼, 직업,

22) 靑雲生, 「女流作家 華星女史의 桃色行狀記」, 『비판』 48, 1938.8, 56면.

23) 유석환에 따르면 잡지 『비판』은 조선공산당 사건에 연루되어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던 송봉우가 출옥 후 창간한 잡지다. 그에 따르면 『비판』지는 본격 ‘정론주의’를 표방, 1931년 5월 창간 이래 1940년 3월까지 2년여의 휴간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통권 114호를 발행한 장수 잡지로, 꾸준히 대중의 관심 속에 있었다. 유석환, 「1930년대 잡지시장의 변동과 잡지 『비판』의 대응」, 『사이SAI』 6권, 국제안국문학문화학회, 2009, 244면. 그러니까 사회주의 잡지이자 대중의 꾸준한 관심을 받아 온 잡지에 박화성에 대한 공개비판이 실려 있는 것이다.

24) 백문임에 의하면 분리주의적 어감을 주는 ‘여류’라는 용어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여성해방문학 논쟁을 거치면서 사용되지 않는 용어가 되었다. 그러나 식민지 시대에는 활약이 두드러진 여성작가군을 특화시켜 ‘여류문단’이라는 용어를 빈번하게 사용했던 것으로 본다. 백문임, 앞의 논문, 313면.

출신학교 등으로 담론화 되었다.²⁵⁾ 특히 갖은 소문의 주인공인 1기의 작가들과의 단절을 통해 자신들만의 문학적 정통성을 확립하고자 했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2기의 여성 작가들 역시 그들의 신변잡기에 대한 논평 뿐 아니라 작품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비문학적 방식을 피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²⁶⁾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식인-남성-문단의 2기 작가들에 대한 평가가 1기에 대한 그것에 비해 긍정적이었다는 것이다. 전희진은 이러한 상황에서 2기 여성작가들이 윗세대를 비평하고 그들과의 차이를 강조하는 것은 그들만의 성공적인 생존 전략이었다고 짐작한다. 급진적인 페미니스트의 주장을 설파하는 대신 이상적인 현모양처상에 근접한 재현을 통해 그들과 거리를 두었던 것이다.²⁷⁾ 실제로 이 시기에 박화성이 발표한 작품에는 서울에서 유학하는 신여성이 등장하고 작가는 이들의 성품이나 차림을 다소 과장되게 재현하며 노골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도록 만든다.

중편 「비탈」(『신가정』, 1933.8~12.)에는 두 명의 여성인물이 대비를 이룬다. 전문학교 삼년 생인 주인공 수옥은 현재 신경쇠약에 걸린 관계로 교의의 권유를 받아 고향집에 내려와 있다. 보리타작이 한창인 고향 마을에서 수옥은 현대식 여성으로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다. “머리를 지지고 전대에 없는 손목 금시계를 차고 뽀족구두를 신고 양속 의복을 입고 얼굴이 현대식 미인이겠다, 스타일이 만점”(101)인 수옥은 그의 애인인 정찬의 표현대로 ‘울트라 모던’한 신여성이다. 그런데 작가는 이러한 신여성과 대비를 이루는 또 한 명의 여성을 주인공으로 설정한다. 배경이 되고 있는 삼향 일대의 제일 큰 부자인 ‘김부자’의 정실 딸 주희가 바로 그다. 수옥

25) 이은주, 앞의 논문, 281면.

26) 심진경, 「문단의 ‘여류’와 ‘여류문단’-식민지 시대 여성작가의 형성과정」, 『상허학보』 제13집, 상허학회, 2004, 291면.

27) 실제로 최정희는 과거 조선에 “완성된 여류 작가가 없”었다고 단언하며 1기 작가들과 거리를 둔다. 전희진, 앞의 논문, 14-18면.

과 보통학교 여자고보 시대의 동급생이었던 주희는 수옥과는 제일 가까운 사이로, “항상 수석 자리를 점령”(118)했으며 외모도 뛰어난 인물이다. 졸업 후 주희가 동경 일본여자대학교 사회과에 학적을 두게 되면서 수옥과는 갈라지게 되었지만 그들은 현해탄을 건너 서신을 주고받으며 우정을 쌓는다. 그러나 주희가 수옥의 애인인 정찬을 도와 농촌 운동과 사회주의 사상에 관심을 가지게 된 반면 수옥은 허영에 몰두하여 있으며 김철주의 물질에 현혹되는 여성으로 그려진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수옥의 형상화에 있어 당시 팽배했던 신여성에 대한 비판담론이 그대로 재연되어 있다는 점이다. 멋과 재물을 탐하는 허영적인 여성, 돈에 이끌려 이미 혼인한 남자(주희의 오빠 김철주)와 망설임 없이 자유연애를 하는 수옥이라는 여성은 앞서 제시한 『신성』지에서 金波에 의해 재현된 신여성(여학생)의 모습과 매우 흡사하다. 중요한 것은 ‘울트라 모던’한 신여성으로 표상되는 수옥이 결국 애인인 정찬과 주희의 사이를 오해하다가 산비탈에서 굴러 떨어져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결말이다. 작가는 이러한 수옥의 죽음에 대해 서술자의 입을 빌어 그녀가 “전락의 비탈”에 떨어진 것이라고 다소 과격한 비판을 가한다. 이 외에도 신여성에 대한 비판이나 직접적인 평가는 또 다른 단편인 「신혼여행」(『조선일보』, 1934.11.6.~21.)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성대 의과 사년 생인 전남 갑부의 아들 준호와 경성의 유수 실업가의 딸이자 R보육학교 졸업반인 주인공 복주의 신혼여행 과정을 그리는 이 작품에서 작가는 복주를 신여성의 표상으로 묘사하면서 거기에 시대와 물정을 모르는 철없는 아이의 이미지를 덧찍는다.

그렇다면 「비탈」의 수옥이나 「신혼여행」의 복주에 대한 작중인물 혹은 서술자의 노골적인 비난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앞선 연구들은, 박화성이 수옥과 주희의 인물대비를 통해 봉건적 수동성에서 벗어난 참된 여성을 지향하고 있으며, 모던 길을 비판함으로써 현실인식의 자각을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²⁸⁾ 특히 백문임의 경우에는 「비탈」

을 계몽적인 통속소설로 분류하면서 박화성이 신여성에 대한 당시의 통념에 기대면서도 그것이 부정된 긍정적인 여성 이미지를 제시한 것으로 평가한다. 박화성이 사회주의 사상을 통해 탈중심화된 영역으로서의 ‘계급’을 자각하고 스스로를 ‘남성 지식인 전위’와 동일시하게 되면서 모종의 자기부정을 겪게 되었다는 것이다.²⁹⁾ 그러나 이들 작품에 부정적으로 형상화된 여성인물들에 대해 단순히 박화성이 그들 신여성들을 극복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라고 결론짓기에는 어려움이 남는다. 왜냐하면 백문임이 ‘자기부정’이라는 표현을 통해 반증하고 있는 것처럼 박화성 본인 이야말로 당시 세인이나 문단의 비상한 관심 속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었던 신여성-작가 중 한 명이었던 때문이다. 그보다는 박화성이 신여성이나 여류작가에 대해 문단이 가하는 비난의 시선을 다분히 의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³⁰⁾ 말하자면 박화성은 당대 지식인 남성 중심의 문단이 신여성-작가에게 가하는 폭력적인 시선과 그로인해 비극적인 말로를 맞은 급진적인 페미니스트였던 1기 여성작가들을 의식하면서 신여성에 대한 비판 담론을 수용, 작품화함으로써 남성 중심 주류문단의 승인 하에 창작활동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³¹⁾

28) 백문임, 앞의 논문; 변신원, 「근현대 여성작가 열전② 박화성-계급의식과 주체적 여성 의식」, 『역사비평』 34, 역사비평사, 1996.2; 최현주정혜연, 「박화성의 단편소설 연구」, 『남도문화연구』 제18집, 순천대학교, 2010.

29) 백문임, 앞의 논문, 316-317면.

30) 심진경은 이러한 2기 여성작가들의 경향을 “제1기 여성작가들과의 반동일시”로 표현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체성 구성 논리가 당시 남성평론가들에 의해 여성작가에게 수용된 것으로 평가한다. 심진경, 앞의 논문, 302면.

31) 그러나 비극적이게도 2기 여성작가들이 소문의 주인공인 1기 작가들과 단절을 통해 자신들만의 문학적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작가와 작품에 대한 비문학적인 기준에 의한 평가는 그대로 반복 적용된다. 위의 논문, 291면.

3. 가부장-사회주의자 남성의 착종된 시선

박화성이 1930년대 남성평론가들에 의해 남성작가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작가라는 평가를 받은 거의 유일한 작가일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맑스주의를 지향하며 프로문학적 경향을 가졌기 때문이었다.³²⁾ 실제 박화성은 1920년대 중후반부터 사회주의를 접하고 이에 깊이 경도된다. 따라서 박화성이라는 여성사회주의자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1920년대 당시의 여성 사회주의 운동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선의 사회주의 여성해방 운동은 1924년 5월 조선여성동우회의 발기에서 비롯된다. 1920년대 당시 조선에서 신여성 운동은 부르주아 여성운동으로 치부되었으며 이것으로는 완전한 여성 해방을 이룰 수 없는 것으로 간주, 이에 박원희, 정종명, 허정숙, 정철성, 주세죽 등이 조선 최초의 사회주의 여성해방 단체인 조선동우회를 발기한 것이다.³³⁾ 흥미로운 것은 이들 대부분이 신여성 운동에 참여했던 인물들이며 사회주의 여성운동에 참여하게 된 원인으로 불교에 귀의한 김일엽, 나혜석 등의 평탄치 못한 삶을 이유로 들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동우회 선언문에서 사회주의 여성운동이 곧 신여성운동이며 퇴폐적이고 부르주아적인 종래의 신여성운동과는 차별화할 것을 선언한다.³⁴⁾ 그러나 이들 사회주의 여성운동이 여성문제에 앞서 계급문제만을 앞세운 것은 아니었다. 이는 조선 여성 사회주의 운동의 대표적인 인물인 허정숙의 '이중 반역 운동'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이중 반역 운동'이란 1924년 9월 29일과, 10월 6일 주간에 걸쳐 『시대일보』에 게재된 강춘생의 「신여성들에게」라는 논설에 대한 반박의 과정에서 나온 말로, 「신여성들에게」는 여성비하를 목적으로 한 글이었다.³⁵⁾

32) 위의 논문, 304면.

33) 박용옥, 「한국신여성운동의 맥락과 역사적 성격」, 성신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여성연구논총』 제1집, 2000, 12면.

34) 위의 논문, 12-13면.

35) 관련하여 다음을 참고. 백숙현, 「사회주의 여성운동가 허정숙(1903-1991)의 활동과 사상에 대

필자는 군의 글이 오직 문장을 수식하여 글재주를 자궁하려는 아무 가치 없는 장문의 글이며 감정의 패설인 것을 간파하였다. 동시에 군의 그 가치 없는 글을 냉소와 함께 간파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군의 그 험담패설과 질타를 만약 그대로 간파할 지경이면 군은 기고만장하여 자기의 행위를 자궁할 것이다. (중략) 이제부터의 여성해방운동은 예전 같은 문화운동만을 배경으로 한 피상적 운동이 아니요, 근본문제로 들어가서 경제적으로 계급적으로 절실한 해방운동을 비롯하여 군과 같은 (전체가 아닌) 남성을 반역하는 운동에까지 이를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제부터의 운동은 이중 반역의 운동이다. 이미 그 소리를 높이 외쳤다. 나는 최후로 한 문장을 군에게 소개한다. “타인을 폄훼하기 전에 스스로 반성하라”는 성현의 훈계를³⁶⁾ (밑줄-인용자)

백숙현에 따르면, 허정숙의 이중 반역 운동은 여성운동을 통해 여성의 인권을 회복한 뒤, 계급투쟁으로 나아가는 단계적 운동방식으로, 여성만의 독자적 문제를 별도로 상정한 것이자 허정숙이 주장한 사회주의 여성운동이 결코 모든 문제를 계급 차원으로 환원한 것이 아님을 방증하는 것이다.³⁷⁾ 그러나 여성사회주의자 스스로에 의해 설정된 계급해방과 여성해방이라는 이중과제는 당시의 남성중심 사회주의 진영 내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관련하여 정일영은 당시 계급해방을 달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여성해방을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행위로 여겨질 뿐만 아니라 계급해방을 방해하는 행위로 여겨졌고 이것이 송계월이나 허정숙 같은 여성사회주의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 것으로 본다. 즉 당시의 남성사회주의자들은 여성해방을 계급혁명의 부수적 요소로 여기

한 재고찰-콜론타이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협동과정 여성학 석사학위논문, 2020, 29-31면. 다만 백숙현의 논문에서 게재일을 1924년 10월 20일과 27일로 제시하고 있는 것과 달리 실제 강촌생의 「신여성들에게」는 1924년 9월 29일과, 10월 6일 『시대일보』에 연재된 것으로 확인된다.

36) 허정숙, 「신여성들에게를 읽고」, 『동아일보』, 1924.10.20., 위의 논문에서 재인용.

37) 위의 논문, 9면.

는 것에서 나아가 개인의 이해를 추구하는 것, 공공성이 없는 이기적인 행동으로 치부하고 격하시켰다는 것이다.³⁸⁾

게다가 1930년대에 이르면 사회주의 진영 내에서 이상적으로 제시되는 여성상이 매우 보수화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권희영에 따르면 당시 남성 사회주의자들이 여성에게 특히 강조했던 책무는 ‘혁명가의 아내’되기였다. 소비에트 러시아의 자유분방한 신연애와 결혼을 이상적인 형태로 간주했던 사회주의자들이 1930년대가 되자 계급적 가치를 위해 연애가 그에 종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여성문제에 대해 다시 보수적이고 반동적인 태도를 드러내게 되었다는 것이다. 사적 영역인 감정의 문제까지도 이데올로기에 부합해야 하고 개인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은 결국 전통적 연애나 결혼제도에 대항해야 한다고 믿었던 여성사회주의자의 사고와 충돌하게 된다.³⁹⁾

이러한 맥락에서 1930년대 박화성의 작품에 나타난 사회주의자의 재현 양상에 주목할 경우,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발견된다. 그것은 박화성의 작품에 제시되고 있는 사회주의자들의 시선이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작품에 나타나는 남성사회주의자들은 작품 속의 여성 인물을 의식화되어야 할 계몽의 대상으로 인식하거나, 아직 각성되지 못했거나 실천하지 못하는 여성을 질타와 타매의 대상으로 삼는다. 그런데 이들을 질타하는 남성사회주의자들의 시선에는 단순한 사회주의자의 시선으로만 파악할 수 없는 다른 요소가 착종되어 있다. 말하자면 남성사회주의자의 시선에 가부장의 시선이 착종되어 여성인물을 향해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하수도공사」는 1932년 5월 『동광』에 수록된 작품으로, 일제가 실업 노동자들의 구제책으로 마련한 하수도공사에 동원된 노동자들이 장기간 임

38) 정일영, 앞의 논문, 24-25면.

39) 권희영, 「1920-30년대 ‘신여성’과 사회주의-신여성에서 프롤레타르성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8, 114-123면.

금체불로 인해 동맹파업하는 과정에서 남성 주인공 서동권이 각성해 가는 이야기다. 이 작품에서 서동권이 각성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동맹파업하는 노동자들을 대표해 경찰에 맞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주의자이자 그의 정신적 지주인 정선생이 수감되는 사건이다. 여기서 정선생의 활동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다만 정선생이 체포된 이후 그 아내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전해듣거나 기사를 확인하는 동권을 통해 정선생이 불온한 내용의 격문을 산포했다는 대강의 상황이 짐작될 뿐이다. 박화성은 정선생의 활동이나 정체를 작품에 밝히지 않는 대신에 당시의 실제 사건을 강하게 환기시킨다. 목포 지역의 격문사건을 다룬 『동아일보』 1931년 8월 1일과 8월 5일, 9월 9일 등의 기사와 비교해 볼 때, 사건의 발생 경위와 체포 과정, 격문의 문구 등이 거의 일치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실제의 사건을 환기함으로써 정선생이 격렬한 사회주의자임을 드러냄과 동시에 박화성 스스로가 그러한 사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이 작품에 나타나는 정선생의 아내이자 사회주의자 김선생의 모습은 의외로 수동적이다. 그 또한 정과 같은 사회주의자로, 격문사건으로 인해 남편과 함께 잡혀가지만 이내 풀려나오고 그 뒤로부터는 동권에게 사건의 전말을 제공하는 정보원의 역할만을 맡는다. 게다가 집안에서의 그의 역할은 어린 자녀인 정해를 교육하는 것에 철저하게 복속되어 있다. 정해로 하여금 벽에 걸린 레닌의 사진을 알아보게 하고, 부하린의 책과 그 속에 끼워진 엽서 속의 인물이 마르크스임을 알게 하는 것, 메이데이의 노래를 부르게 하는 것 등 김선생은 어린 자녀에게 사회주의와 관련한 지식을 교육하고 양육함으로써 동권으로부터 감탄이나 감상을 자아내는 하나의 대상으로 머물고 만다. 이처럼 가정을 돌보거나 자녀를 양육하는 역할로 한정된 여성사회주의자 모습은 「혈어진 청년회관」을 통해서도 확인된다.⁴⁰⁾

40) 본래 「혈어진 청년회관」은 김기진의 청탁으로 1934년 『청년조선』의 창간호에 게재될 예정이었으나 일제의 검열로 인해 수록되지 못했다가 해방 후 공개된 작품이다.

작품의 주인공인 효주는 남편이 입옥한 지 사년이 되어가는 지금 “친정 부모에게 조식밥의 신세나 끼치면서 남편이 출옥하기”⁴¹⁾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어느 날 효주는 ‘ML당’의 당원이었던 오빠가 “생시와 같은 위엄 있는 얼굴빛과 우렁찬 목소리로 연단 위에서 주의를 선전하는 열변을 토하”(166)다 경관들에 의해 끌어 내려지고, 오빠를 향해 앞장서 가려던 자신이 사람들에게 떠밀려 엎어지는 꿈을 꾸다. 효주에게 오빠는 “오직 하나의 선배이며 동지”(165)였으나, 북쪽으로 망명해 맹렬한 활동을 하다가 6년 전 폐병으로 사망한 뒤부터 효주의 그리움의 대상이자 동경의 대상이 되어 온 인물이다. 효주는 현재 남편이 부재한 상황에서 동경의 대상이었던 오빠의 아내와 오빠의 유일한 혈육인 조카 종현과 함께 친정 집에 머물고 있다.

이 작품은 이전의 박화성의 단편들에서 구체적인 활동양상이 드러나지 않았던 사회주의자의 사상이나 실천이 효주의 회상을 통해 직접적으로 노출되고 있다는⁴²⁾ 점에서 박화성의 단편들 중 작가가 가지고 있는 사회주의자의 상이 가장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작품에서 남성사회주의자는 부재한다. 효주의 오빠는 이미 6년 전에 사망한 상태이며, 남편은 현재 감옥에 수감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투옥되거나 지하활동을 하거나 이 작품에서처럼 활동을 하던 중 사망하는 것으로 제시되는 사회주의자의 비가시적 성격은 오히려 그들이 사회주의자였음을 강력하게 환기하는 가시적인 효과를 드러낸다.⁴³⁾ 다만

41) 박화성, 「혈어진 청년회관」, 『박화성문학전집』16, 푸른사상, 2004, 171면.

42) 「혈어진 청년회관」 이전에 주의자가 등장하는 작품으로 「하수도공사」, 「떠내려가는 유서」, 「비탄」을 들 수 있다. 이들 작품 중 「떠내려가는 유서」의 경우에는 주인공 은순의 오빠에게서 이러한 주의자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으나 그는 이미 폐병으로 사망한 상태이다. 「비탄」의 경우에도 농촌에서 운동을 실천하고자 하는 남녀 주인공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그들이 강조하는 운동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을뿐더러 이야기의 중심이 연애 문제로 기울어져 있어 그 구체적 양상을 파악하기 어렵다.

43) 이혜령, 「감옥 혹은 부재의 시간들-식민지 조선에서 사회주의자를 재현한다는 것, 그 가능성의 조건」, 『대동문화연구』 제64집, 2008.

이 작품에서 주의자의 실체는 효주가 꿈에서 본 오빠의 시선으로 처리되면서 끊임없이 효주를 따라다닌다. 그런데 문제는 “주야로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누이의 꿈에나마”(165) 자주 보이지 않던 오빠의 시선이 꿈속에서 매우 냉정하다는 것에 있다.

(가)……효주는 그 오빠의 시선을 따라다니며 자기의 것과 마주치기를 바랐으나 오빠의 누이를 바라보는 눈초리는 몹시 냉정하였다. 효주의 안타까워하는 눈은 행여나 한번쯤이라도 다정한 시선을 얻기 위하여 열심히 오빠의 빛난 눈이 가는 것을 따라다니고 있을 때 별안간 그의 오빠가 주먹으로 책상을 치고 발을 구르며(165) (밑줄-인용자)

(나) 그는 그의 오빠가 꿈에 외치던 말소리를 입 속에 넣어면서 주먹을 부르쥐고 흥분하다가도 냉정하게 자기를 바라보던 그의 시선을 생각하고 한가닥의 비애와 고적을 느꼈다.(166) (밑줄-인용자)

(가)에서 보이듯 효주는 꿈에서나마 보게 된 반가운 오빠와 시선을 마주치기 위해 그의 시선을 쫓지만 효주를 바라보는 오빠의 “눈초리는 몹시 냉정”하며 효주로 하여금 “한 가닥의 비애와 고적”을 느끼게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오빠의 냉정한 시선을 느끼는 것이 오빠의 아내인 원주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현주에게만 한정된 것이라는 점에 있다. ‘혁명가의 아내’인 원주는 “혁명가의 아내로서 부끄럽지 않을 만한”(168)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효주와 달리 원주가 떳떳한 이유, 혁명가의 아내로서 부끄럽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원주와 효주가 처해진 상황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선택한 삶의 방식이 다르다는 점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똑같이 사회주의자인 남편이 부재한 상황에서 원주는 며느리로서 시부모를 모시고 남편의 자식을 맡아 기르며 ‘며느리-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반면, 효주는 그러한 ‘며느리-어머니’로서

의 역할을 거부하고 부모의 집에서 신세를 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작품 속에서 효주가 원주를 ‘혁명가의 아내’로서 부끄럽지 않은 일을 하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은 그가 부엌일을 하거나 “부지런히 조반을 짓”(168)는 일에 열중하고 있을 때다. 이러한 원주의 모습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부여하고, 이에 자극을 받아 효주가 이어서 하는 일은 “간밤 꿈에 보인 그의 오빠를 생각하면서 종현의 아침 복습을 돌봐 주”(168)는 것이다. 그러니까 효주가 원주에게서 본받을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원주가 부재한 사회주의자의 집안을 잘 돌보고 그의 자식을 훌륭하게 길러내는 일, 즉 육아와 가사노동이라고 하는 전통적 가부장이 여성에게 요구하는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형님께는 종현이를 사람답게 오빠의 아들답게 키운다는 큰 책임이 있잖아요? 대체 나는 이대로 있다가 어떻게 내년에 출옥하는 그를 맞을 수가 있겠어요? ㉡작년에 면회할 때도 그는 내게 뜻 깊은 시선으로 암시적 지시를 하였건만 무능한 나는 무심히 지나치고만 말았거든요. 그리고 정말 ㉢어젯밤 꿈에 오빠의 나를 보던 시선이 그다지 싸늘하던 것도 아무리 우연한 꿈에서라 하지마는 나는 큰 충동과 힘을 얻게 되었어요 …(이하생략)”(172) (밑줄-인용자)

㉠은 주의자의 아내로서 원주가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내고 있다는 것을 효주가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다. “종현이를 사람답게 오빠의 아들답게 키운다는 큰 책임”이 있다는 서술은 효주가 자신의 의무로서 육아와 가사노동을 의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더 직접적으로 드러내 준다. 그러니까 효주가 ㉢에서처럼 “어젯밤 꿈에 오빠의 나를 보던 시선이 그다지 싸늘”하다고 느낀 것은, 자신이 ‘머느리-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책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효주와 같은 여성사회주의자를 괴롭히는 오빠로 대표되는 남성사회주의자의 시선에

가부장적 남성의 시선이 착종되어 있음이 드러나는 것이다.

㉔은 가부장적 남성사회주의자 착종된 시선을 좀 더 구체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효주는 작년에 있었던 남편과의 면회를 회상하면서 그가 자신에게 “뜻 깊은 시선으로 암시적 지시”를 한 것이라 여긴다. 여기서의 ‘암시적 지시’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는 어렵다. 다만 효주가 반성하는 현재의 생활이 며느리-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않다는 점, 또 15명의 여성구락부를 조직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그것을 “목표조차도 선명하지 못한 여성구락부라는 작은 단체의 한 부원이 되어서 가끔 일어나는 천재에 피해당한 이재민이나 구해준다는 임시임시의 목적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에 사로잡”(171)혀 있다고 스스로를 비판하면서 “오빠의 아들답게” 종현이를 키우고 있는 원주를 칭찬하는 것을 통해 그 의미를 어렵פות이 추론할 수 있을 뿐이다. 여성구락부를 조직해 이재민 돕기와 같은 농촌운동을 하는 것이 “임시임시의 목적으로” 돌아다니는 일에 불과하다면 주의자의 자식을 훌륭하게 길러내 다음 세대를 양성하는 것이 좀 더 의미 있는 일이자, 혁명가/사회주의자의 아내로서 해야 할 의무에 더 적합한 일이 되는 것이다. 즉 육아와 가사노동에 집중하며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것이 여성사회주의자의 의무인 셈이 되며, 이러한 논리는 가부장적 남성사회가 여성에게 요구하는 역할과 일치한다. 결국 오빠와 남편의 시선에서 효주가 읽어낸 것은 가부장과 사회주의가 착종된 남성사회주의자의 시선이다.

여성에게 육아와 가사노동의 의무를 당부하는 남성사회주의자의 시선은 「혈어진 청년회관」보다 앞서 발표된 단편 「떠내려가는 유서」(『만국부인』, 1932.10.)에서도 확인된다. 우수한 성적으로 교장의 도움을 받으며 여학교에 다니는 주인공 은순에게 “생명이 되고 부모가 되고 희망”(95)이 된 오빠, “두 달 동안 병석에서 신음하다가 유서 한 장을 남기고 작년 겨울에 죽어 버”(95)린 오빠는 “어머니의 하루 이삼십전의 샅전으로 다섯 식구가 겨우 입에 풀칠만 하면서도 그나마 공장이 휴업할 때는 이 집의 식

구가 며칠이라고 굶을 수밖에 없”(96)는 열악한 상황에서 “허위와 가장이 많은 현재 학교의 교육만을 받으려 애쓰지 말고 공장 내에서 친히 당하는 실제의 교훈이 절실히 필요함을 깨달”(97)으라고 유서를 남긴다. 그러나 언뜻 주의자의 당부와도 같은 이러한 유서의 마지막을 오빠는 “그리하여 두 아우를 무쇠 같이 키”(97)워 내라는 것으로 끝맺는다. 죽음을 앞둔 오빠가 유서의 마지막에 남긴 유언이 역시 여성에게 사회주의자를 길러내도록 강요하는 가부장과 사회주의가 착종된 남성의 시선이었던 것이다. 박화성은 이처럼 한편으로는 「비탈」의 수옥이나 「신혼여행」의 복주를 통해 신여성에 대한 비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남성 사회주의자의 가부장적 시선을 강하게 의식하며 후속세대를 길러내는 전통적 여성상을 이상화하는 작품을 창작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가부장적 남성사회주의자들에 의해 강요된 양육과 가사노동의 문제에 대해 박화성이 정작 어떠한 판단을 내리는가에 있다.

4. 사회주의에 대한 이상과 여성가장이라는 현실

女流作家로서 眞職業을 가지는 것이 언뜻 생각하면 苦痛과 煩悶이 될 것같지만 은 그렇지도 않을듯합니다. 왜그러나하면 집아에서 하는일이 오직이나 많나요 새벽 방, 마루, 掃除붙어 밥지어먹고 빨래, 풀, 뜸이, 바느질, 아이들 뒤봐주기, 요런 잡동산이 일에 빠져서 해매면서도 붓을들고 제법 創作해보겠다고 勇氣를 내는걸보면 차라리 한 職業을 가지고나서서 거기에 熱中하면서 家事는 적당한사람을 얻어마끼고 育兒라거나, 대강만 보습히는 것이 훨씬 더 머리를 깨끗하게 해줄것같어요.(후략)⁴⁴⁾

위의 인용문은 『심천리』 1936년 2월호에 실린 「女性作家座談會」 중 박

44) 「女性作家座談會」, 『심천리』, 1936.2, 226면. 김영미, 앞의 논문, 13면에서 재인용.

화성의 발언 부분이다. 김동환이 사회를 맡고 박화성 외에 장덕조, 모운숙, 최정희, 노천명, 백신애, 이선희 등 당시 여성작가들이 참여한 이 좌담회에서 여성작가들은 창작 자체의 고뇌보다 이를 제한하는 주변 환경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는데, 특히 박화성은 집안일에 시달리는 것보다 오히려 창작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얼마든지 좋은 작품을 내놓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인다.⁴⁵⁾ 이와 같은 언급은 박화성이 「하수도 공사」나 「혈어진 청년회관」을 통해 제시했던 이상적인 여성인물의 모습과 배치된다. 특히나 갖가지 가사노동을 열거하면서 아이들 뒤봐주기 등을 ‘잡동산이’로 정확하게 명명하고, 가사 등은 적당한 사람을 얻어 맡기고 육아는 대강만 보살피는 것이 머리를 깨끗하게 해 줄 것이라는 내용은 이들 작품에 나타난 육아와 가사노동에 관한 작가의 거듭된 강조와 정확하게 반대되며 그 진정성을 의심하게 한다. 다음은 1935년 잡지 『삼천리』에 실린 『북국의 여명』의 집필의도다.

...그러나 이상의 모든 점보다도 주로 나의 노력하는 바는 남자의 부속물로서 일생을 지내야만 한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한 여성이나마 자식으로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의 도리와 천직을 다하면서도 남자의 구속과 가정의 예속에서 완전히 벗어나 또한 한 개의 인간으로서 그의 사상과 일을 위하여 굳게 얽힌 情理와 萬難을 돌파하고 끝까지 용맹스럽게 나갈 수 있다는 것을 특별히 우리 여성 諸氏에게 보이려는 것입니다.⁴⁶⁾

위의 집필의도에서도 파악할 수 있듯이 박화성은 여성이 남자의 부속물로 지내는 상황을 부당한 것으로 인식하면서 남성은 여성을 구속하는 주체로, 가정은 여성을 예속하는 공간으로 적시하고 있다. 특히 이와 같은

45) 위의 논문, 14면.

46) 이 글은 문예관련 기사인 「십만 애독자에게 보내는 작가의 편지」 중 박화성의 부분으로 「進歩層의 理想과 苦悶을 「北國의 黎明」(中央日報)을 쓰면서」라는 제호를 달고 있다. 『삼천리』 제7권 제10호, 1935.11. 75면.

강요된 상황을 필수적 조건임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어)야만’을 활용함으로써 그렇게 하는 것이 여성으로서의 필수적인 조건임을 드러내고 있다. 앞서 살펴본 좌담회와 위의 집필의도는 3년이라는 시간의 격차가 있음에도 논지에 변함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한때 사회주의에 가담했던 여성사회주의자이자 작가로서 실제 박화성과 그가 작품을 통해 환기하고 있는 등장인물로서의 여성사회주의자라는 세 정보 사이에 낙차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이해를 위해 여성사회주의자의 모습을 집중적으로 그리고 있는 장편소설 『북국의 여명』(『조선중앙일보』, 1935.4.1.~12.4.)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국의 여명』은 여주인공 백효순이 어려운 환경을 딛고 동경유학 등을 거쳐 여성사회주의자로 성장하지만 사회주의자 남성과의 결혼과 그의 검거 및 장기간의 복역으로 인해 귀국, 생활고에 시달리다 남편과 어머니, 아이들이 있는 가정을 버리고 북국을 향해가는 내용이다. 이 작품은 흔히 박화성의 자전적인 경험이 투영된 작품으로 알려져 있는데 공교롭게도 여성으로서 효순이 겪는 ‘신여성-여성사회주의자-여성가장’이라는 생애의 변화가 박화성의 그것과 매우 일치한다.

이 작품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신여성이자 여성사회주의자인 주인공 효순에 대한 주변 남성인물들의 비상한 관심과 경쟁이다. 실제 당시 신여성이자 여성사회주의자에 대한 남성지식인들의 태도는 크게 두 부류로 나뉘어졌다. 일군의 남성지식인들이 사회주의의 ‘성적방종’을 근거로 자신들이 비난받는 것을 막기 위해 여성사회주의자들의 성을 통제하고자 했다면 일군의 지식인들은 그들의 해방적 연애관을 이용, 새로운 연애의 대상으로 삼고자 했다.⁴⁷⁾ 『북국의 여명』에는 주인공 백효순을 향한 남성인물들의 끊임없는 구애의 에피소드를 삽입함으로써 이러한 이중적 상황이 잘 드러난다. 작중에서 효순에게 구애하는 남성들은 조선에서 교

47) 배상미, 「식민지 조선에서의 콜론타이 논의를 수용과 그 의미」, 한국여성문학학회, 『여성문학연구』 33, 2014, 302면.

사 이상의 직업에 종사하는 지식인이거나 일본 유학 중에 사회주의 사상에 경도되어 이를 실천하는 인물들이다. 이들 유명, 무명의 남성지식인은 혹은 남성사회주의자들은 효순의 외모와 이지에 반해 그의 의사와 무관하게 연애편지를 보내고 구애하며 효순을 곁에 두려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효순은 다음과 같이 자평한다.

“정말 여자 노릇하기도 무척 힘들고 괴로운 게다.”

그는 눈을 감고 머리를 흔들면서 중얼거렸다.

그전에는 리창우의 애인이었고 작년에는 최진의 약혼자이다가 금년에는 다시 김준호의 연인이 되어있는 자신을 생각하니 부끄럽기도 하고 불쾌하기도 하여서

“아이 귀찮어.”

하고 이맛살을 찌푸렸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이 뭐 내 잘못이 있어서 그런 것인가? 못사내들에게서 구연(求戀)의 충습격을 그렇게 받으면서도 오늘까지 굳세게 이겨나온 내가 되려 장하지 않을까?”⁴⁸⁾(431-432)

인용된 부분은 자칫 주인공 효순의 지나친 자의식의 발로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당대 여학생이자 신여성, 여성사회주의자라는 존재에 대해 남성들이 보이는 비상한 관심의 반영으로 보아야 한다. 작중 효순이 정말로 남성들의 관심에 우월한 기분을 가지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남성인물들이 당시의 신여성인 효순에게 보인 맹목적인 관심에서 기인한 우월감이기 때문이다. 특히 인용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남성사회주의자인 리창우, 최진, 김준호에게 있어서도 이 같은 상황은 예외가 아니다. 리창우는 효순이 여학생 시절 애정관계를 형성한 유일한 인물이지만 불시에 죽어버렸고, 최진은 효순에 대한 일방적인 구애 끝에 효순의

48) 박화성, 『북국의 여명』, 푸른사상, 2003. 이후 해당 작품인용은 면수만 표기하기로 한다.

유학생활을 뒷바라지 하지만 정작 마음을 얻지 못하고 마는 인물이다. 김준호는 효순이 동경의 주의자 단체에서 일하면서 만나게 된 사회주의자로 효순과 이상과 애정의 측면에서 합일을 이루지만 투옥 중의 전향으로 인해 효순의 분노를 사고 만다. 이러한 남성사회주의자와의 불화는 효순과 동료 여성사회주의자들이 외쳤던 여성해방의 논리가 결과적으로는 남성들의 감시나 과도한 관심 하에 놓이게 된 상황을 암시하는 것이며 결국 남성사회주의자 또한 다른 남성들과 다르지 않은 것에 대한 반영인 것이다. 남성사회주의자에 대한 부정적 재현이라는 이러한 결과는 남성사회주의자를 전면화했던 앞서의 단편들과는 다른 양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여성사회주의자인 효순을 초점화 함으로써 가능한 것이 된다.

『북국의 여명』이 당시 박화성의 실제 행적을 마치 일기처럼 기록한 자전적 소설이라고 할 때 또 한 가지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작품 말미에 나타난 효순의 동경에서의 사회주의 활동이다. 저자와 주인공이 동일성을 획득하고 있는 이 작품에서 효순은 사회주의에 열의를 가지고 있으며 독서회에 가담해 임원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된다. 그러나 그 안에서 이론과 지식 위주인 전문학교 출신의 효순 무리와 보통학교를 나왔지만 이미 실천가로서의 면모가 확실한 일군의 여성사회주의자 간에 분리와 갈등이 생긴다.

효순이를 비롯하여 효순의 동무들은 동회의 최고간부들이 되었으나 임원회석상에서는 효순 측의 간부들이 이미 한 투사로써 모험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풍부히 가지고 있는 단체측 간부들의 의견과 주장을 따라가는 수밖에 없었다.

“여보 전문학생이란 간판은 치위버립시다 그려. 그 사람들은 여학교도 못 댕겼다 해두 어찌면 그렇게 유식허우? 우리는 거기다가 대니깐 아주 무식쟁이고 천치 바로 같습디다 그려.”

“그러기에 우리는 그저 이름이 좋아서 불로초더라고. 우리 XX지회의

간판노릇이나 하는 셈칩시다 그려.”

“그러니깐 우리야 그네들에게 이용당하는 셈이지 뭐.”

“난 이뎸부터 안 갈테야. 그것도 효순 언니 때문이지.”

이 모양으로 효순의 동무들은 회를 파하고 돌아올 때마다 서로 분해하며 지꺼렸다. (363)

제시된 에피소드로 효순의 상황을 미루어 보면 그를 비롯한 전문학교 여학생의 무리가 얼굴마담의 격으로 단체의 임원을 맡고는 있었지만 내부적으로 다소간의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에피소드와 실제 근우회 동경지회의 발기인회에 여학생 근 삼백여 명이 참석했다는 기사를 통해 짐작하건대⁴⁹⁾ 당시 근우회 동경지회는 다양한 성분과 사상 정도의 여학생들이 모여 만든 단체였으며 효순은 이 단체 안에서 심리적 열등감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아마도 효순이라는 여성사회주의자의 활동 근간이 최진이라는 변절한 남성사회주의자에게서 나오는 자본에 있었다는 점 때문이었을 것이다. 여성사회주의자가 자신의 이상과 뜻을 펼치고자 하더라도 현실의 벽은 높았으며 이를 타계할 강한 의지와 실천은 독립적으로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가능했던 것이다. 자본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최진에게 끌려다니던 효순은 그가 제공하는 유학비를 일거에 거절하는 결단을 내리게 되지만 극도의 궁핍에 시달리며 김준호와의 사이에서 생긴 아이를 출산하게 된다.

... 순정이가 끊어 주는 죽물로 목을 축이며 오직 혼자만 느끼고 알 수 있는 지옥 속의 괴로움 같은 괴롭고 아프고 귀찮은 시간이 계속되는 중
에서 첫 이레가 지나고 삼칠일 지나서야 효순이는 비로소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다. 효순이가 아이를 난 후부터는 몸도 급히 약해졌을 뿐 아니라 밤이나 낮이나 아이에게 매어 있느라고 적은 틈도 없을뿐더러 아이를

49) 『중외일보』, 앞의 기사.

맡기고 외출할 수가 없어서 집회의 모든 직무를 전부 사면하고 들어앉아만 있으니 너무도 자기 자신이 등신같이 보이고 자기의 생활이 가엾게 생각되어 백 날이 지난 아이를 데리고 귀국하기로 결심하였다. (439)

아이를 출산한 후 효순은 전처럼 집회의 직무를 보지 못한다. 이에 효순은 자괴감을 느끼고 결국 갓난아이를 데리고 조선으로 귀국하고 만다. 여기서 박화성은 아이에게 매어 자신의 직무를 다하지 못하는 효순이 스스로를 ‘등신’과 같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표현한다. 이는 박화성이 단편에서 제시했던 이상적인 여성사회주의자-아내의 상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하수도 공사」나 「혈어진 청년회관」에 제시된 양육자이자 교육자에 복속된 이상적인 아내의상이 장편 『북국의 여명』에 이르러 여성사회주의자를 초점화 하면서는 앞선 좌담회에서 박화성이 밝힌 양육과 가사에 대한 논지와 오히려 일치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이 같은 상충은 초점화된 인물이 남성사회주의자에서 여성사회주의자로 변모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장편소설이라는 장르의 특성상 박화성이 긴 호흡으로 솔직한 자신의 소회를 반영할 수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더하여 해당 시기 박화성이 극심한 빈곤 속에서 여성가장의 역할을 떠안았기 때문이기도 하며 작가로서 박화성이 가진 소명의식 때문이기도 하다. 일련의 작품이 발표된 1930년대 초반은 전남편이던 김국진의 복역 기간이 길어지면서 여성 가장으로서 박화성이 매문을 통해 생계를 이어나가야 했던 시절이다. 비록 이 기간이 길다고는 할 수 없지만 「여류작가가 되기까지의 고심담」과 같은 수필을 통해 이 시기 박화성이 겪은 고통을 짐작할 수 있다. 박화성은 “킴킴한 한 칸 방 속에서 그래도 고리짜를 들여놓고 살림이랍시고 놔두고 네 식구가 그 추운 겨울밤을 웅숭크리고”⁵⁰⁾지내고 고심을 거듭해 창작한 「하수도 공사」가 ‘춘원 추천 소설’이라는 레테르 때문에 정당한 대우를 받

50) 박화성, 「여류작가가 되기까지의 고심담」, 서정자 외 엮음, 『나는 여류작가다』, 푸른사상, 2021, 336면. 본래 「여류작가가 되기까지의 고심담」은 1936년 2월 『신가정』에 발표되었다.

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오로지 소설을 쓰기 위해 형편에 맞지 않게 무리를 하면서도 글쓰기에 방해가 되는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고 서재 하나 가지 못한 자신의 처지를 비판하면서 붓을 놓지 못한다.⁵¹⁾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온갖 남성들의 원치 않는 구애에 노출되고 생활 고에 시달리면서도 남편의 옥바라지를 성실하게 이어나갔으나 계급적 동반자로 여겼던 남편의 전향을 지켜본 여성주인공 효순이 전향한 남편을 호되게 비판하고 어머니와 두 아이까지 버리고 홀연 북국으로 향해간다는 『북국의 여명』의 끝은 여성해방과 계급해방을 꿈꾸었던 신여성이자 여성사회주의자이며 작가였던 박화성의 개인적인 욕망이 가장 절실하게 투사된 결말로 읽을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지금까지 박화성의 단편 소설과 장편 『북국의 여명』에 나타난 주의자의 재현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그간 계급의식과 여성의식이라는 두 가지 속성이 불화하는 것으로 여겨졌던 박화성의 경향적 작품의 의미를 재규명하였다. 박화성의 1930년대 작품을 중심으로 이에 나타난 주의자의 재현 양상에 주목하면서 이를 박화성이 활동했던 당대의 신여성-작가에 대한 인식과 사회주의 운동의 맥락에서 확인해 본 결과 박화성의 작품에 드러나는 분열의 양상을 확인하였다. 그것은 박화성이 「비탈」이나 「신혼여행」과 같은 작품에서는 당대 지식인 남성과 남성중심 문단에서 가한 신여성에 대한 비판 담론을 수용, 작품화하고, 「하수도 공사」나 「혈어진 청년회관」을 통해 당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한 여성상을 이상적인 것으로 제시하면서도 『북국의 여명』과 같은 장편이자 여성사회주의자

51) 위의 책, 343면.

를 초점화한 작품에서는 이전의 단편 작품들과 달리 그에 대한 반감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 같은 사실을 통해 박화성은 신여성이나 여류작가에 대해 문단이 가하는 비난의 시선을 다분히 의식하는 한편, 당시 가부장적 남성사회주의자 진영에서 여성사회주의자에게 요구했던 이중적이고 불안정한 여성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작품화하는 방식으로 창작활동을 유지하려 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박화성이 더 이상 계급문학을 지속하지 못한 이유는 주의자들에 대한 위협과 감시라는 사회 전반의 분위기, 여성사회주의자들 간의 위계와 불화, 그보다 남성 중심 문단과 가부장적 남성사회주의자의 억압적 시선, 생계유지에서 기인하는 고통 등 이상을 실현할 수 없도록 만드는 주변의 여건 때문 때문이었다. 따라서 박화성의 작품에서 경향적인 색채가 점차 사라지게 되는 것은 그가 사회주의자 남성이나 ‘오빠’로부터 감화 받고 시류에 영합한 얼치기 사회주의자여서도, 재산가인 남편과 재혼한 뒤 부르주아가 되어 변절한 탓도 아니다. 단지 박화성이 활동했던 당시의 조선 사회가 신여성이자 여성사회주의자에게 종용했던 ‘자연스러운’ 수순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제는 오히려 이런 여건 속에서도 작가로서의 자신을 잃지 않은 박화성의 집념에 대해 재평가해야 한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동아일보』, 『비판』, 『삼천리』, 『신동아』, 『중외일보』
박화성, 『북국의 여명』, 푸른사상, 2003.
박화성, 『박화성문학전집』16, 푸른사상, 2004.

2. 단행본

- 권영민, 『한국계급문학운동연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4.
김윤식, 『한국문학사논고』, 범문사, 1973.
서정자 외 편, 『나는 여류작가다』, 푸른사상, 2021.

3. 논문

- 권희영, 「1920~30년대 '신여성'과 사회주의-신여성에서 프로여성으로」, 한국민족운동사학회,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8, 1998.6. 101-128면.
김영미, 「1930년대 여성작가의 문단인식과 글쓰기 양상」,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김중옥, 「일제강점기 박화성 문학의 지역성 연구: 동반자작가로서의 위상과 관련하여」, 『한국현대문학연구』 42호, 2014.4. 207-235면.
박용옥, 「한국신여성운동의 맥락과 역사적 성격」, 성신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여성연구논총』제1집, 2000, 1-18면.
배상미, 「식민지 조선에서의 콜론타이 논의의 수용과 그 의미」, 한국여성문학학회, 『여성문학연구』 33, 2014, 299-330면.
백문임, 「박화성의 경향소설에 나타난 계급과 성의 문제」, 『현대문학의 연구』 11, 한국문학연구학회, 1998., 309-336면.
백숙현, 「사회주의 여성운동가 허정숙(1903-1991)의 활동과 사상에 대한 재고찰-콜론타이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협동과정 여성학 석사학위논문, 2020.
변신원, 「근현대 여성작가 열전② 박화성-계급의식과 주체적 여성의식」, 『역사비평』 34, 역사비평사, 1996.2, 355-370면.
서정자, 「일제강점기 한국여류소설 연구」, 숙명여대 박사, 1987.
서정자, 「박화성의 시대와 문학」, 『문학춘추』 28, 1999, 34-43면.
심진경, 「문단의 '여류'와 '여류문단'-식민지 시대 여성작가의 형성과정」, 『상허학보』

- 제13집, 상허학회, 2004, 277-316면.
- 유석환, 「1930년대 잡지시장의 변동과 잡지 『비관』의 대응」, 『사이SAI』 6권,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09, 239-271면.
- 이혜령, 「감옥 혹은 부재의 시간들-식민지 조선에서 사회주의자를 재현한다는 것, 그 가능성의 조건」, 『대동문화연구』 제64집, 2008, 71-118면.
- 전희진, 「식민지시기 문학의 장에서의 여성 작가들-2세대 여성 작가들의 작품과 삶의 경로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사학회, 『사회와 역사』 93, 2012, 5-47면.
- 정원아, 「근우회와 조선여성해방 통일전선」, 『역사문제연구』 42권, 2019, 391-431면.
- 정일영, 「일제 식민지기 남성의 ‘여성해방’담론 소비방식-1920년대 잡지로 보는 담론의 전략과 (비)웃음의 정치」, 역사학연구소, 『역사연구』32, 2017.6, 7-55면.
- 최창근, 「박화성 소설 연구: 1950~1960년대 소설의 담론적 실천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 최현주·정혜연, 「박화성의 단편소설 연구」, 『남도문화연구』 제18집, 순천대학교, 2010, 271-297면.

<Abstract>

Park Hwa-seong as a new woman,
female socialists, female breadwinner

Seo, Yeo-Jin

This article aims to make a fair assessment of Park Hwa-seong's literature and her activities during the 1930s. Park Hwa-seong(1903-1988) was a writer who was deeply involved in socialism as the first chairman of the Tokyo Branch of the Keun Woo Hoi (權友會, (Association of Women's Movement) in 1927, the following year when she moved to Japan after graduating from Sookmyung Girls' High School. While Park Hwa-seong quit her studies and returned to her hometown of Mokpo due to marriage and childbirth, she creates works that reflect class consciousness through various works. However, Park Hwa-seong's literary research, which has been discussed mainly on class consciousness and women's consciousness, has pointed out that the two tendencies seen in Park Hwa-seong's work focus on class consciousness rather than women's consciousness, and these two conflicts. However, Park Hwa-seong's short story before liberation and “*Dawn of the Northern Country*”(『북국의 여명』) show different aspects, confirming that the disappearance of class consciousness in Park Hwa-seong's works stems from the social perception of the new female writer of the time. Park Hwa-seong was actively engaged in the dual and unstable role of women that the socialist camp demanded of female socialists at the time, while being very conscious of the criticisms that man's society made against

new women or female writers. In other words, Park Hwa-seong was able to maintain her creative activities while being conscious of the mainstream paragraph by mirroring on the male-centered socialist movement of the time and the critical discourse about the new women in the paragraph. However, extraordinary interest on her as a new woman and socialist, her perception of female socialists within the socialist camp and conflicts within the socialist camp, and her personal situation of having to take care of a living as a female breadwinner made it difficult for her to continue her work. In order to identify and evaluate class consciousness and women's consciousness in Park Hwa-seong's works before liberation, the complex situation of Park Hwa-seong, a new woman, a female socialists, and a female breadwinner, should be fully considered.

Key words: Park Hwa-seong, new woman, female socialists, female breadwinner, "*Dawn of the Northern Country*(『북국의 여명』)", Keun Woo Hoi

투 고 일: 2021년 5월 16일

심 사 일: 2021년 6월 12일

게재확정일: 2021년 6월 15일

수정마감일: 2021년 6월 22일